

토요일 '꿈다락 문화학교'에서 놀자



광주 28개 문화기관·단체 초중고·가족 프로그램 운영

의재미술관 '놀GO·먹GO·꿈꾸GO' ... 한국화·무용 체험

수하갤러리 '영화 산책' ... 은암미술관 '예술의 거리 탐방'

'친구야 토요일에는 꿈다락 문화학교로 놀러가자.'

봄을 맞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지역 문화 기관 및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꿈다락 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꿈다락'은 '내 꿈의 아지트'라는 의미로 예술이 펼치는 상상, 놀이가 주는 즐거움 등을 합침으로 있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매주 토요일 가족의 여가들이 더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미술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무등산 속에 자리 잡은 의재미술관은 '의재에서 놀GO, 먹GO, 꿈꾸GO : 한국화를 매개로 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동양화만이 아닌 설치미술, 무용 등 여러 장르

온암미술관에서 열린 '거꾸로 보는 미술관' 프로그램(왼쪽)과 수하갤러리에서 진행된 '나는 영화산책자' 프로그램(위).

와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과 학부모, 일반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에 열리며, '놀고 Go-I의 재 선생님과 함께 놀다', '먹 Go I-동양화 재료를 탐색하고 활용하다', '먹 Go II-미파선의 움직임을 통해 상상력을 촉진시키다', '꿈꾸 Go-의재 선생님과 함께 꿈꾸며 이야기를 담다' 등 주제로 꾸며진다. 문의 062-226-3040.

수하갤러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4 시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 주관으로 '나는 영화산책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영상작품의 제작방식을 직접 감독, 평론가들의 해설과 함께 살펴보고, 참가자끼리의 감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영화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주제를 통해 다양한 삶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 대상은 초·중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26-8484.

무등현대미술관도 매주 토요일 오후 1~4 시 'Come Together 조형예술학교-에콜리주(에코+콜리주)'를 주제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강의형, 관람형, 체험형, 실연형 등으로 전통문화관,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은 친환경재료와 폐품을 활용한 콜리주 작품을 만들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친환경 자연재료로 작품 만들기, 전시 등도 함께 진행한다. 문의 062-223-6677.

은암미술관은 '거꾸로 보는 미술관 : 생각사위 쓰쓰'와 '대의동 꼬마 디렉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거꾸로 보는 미술관'은 미술관 전시 작품 및 소장품 등을 감상하고, 느낌을 연극이나 조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해 신체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광주시립미술관 견학과 계립동 '북은 공방 창작스튜디오 탐방'도 함께 진행된다.

'대의동 꼬마 디렉터'는 예술의 거리 일대 문화예술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변 장소를 활용해 '어린이가 만든 문화예술공간'을 직접 제작해볼 예정이다. 문의



경 표현재료와 폐품을 활용한 콜리주 작품 062-231-5299.

국윤미술관도 매주 토요일 '토닥토닥미술관'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미술기법의 표현을 통해 미적 활동을 체험하고, 자신과 또래, 가족에 대한 소통,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232-7335.

이 밖에도 각각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회, 핸드락공예협동조합, ESR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숲, 디엠씨아트컴퍼니, 토리힐동조합, 문화행동S#ART 등 28개 문화기관 및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보도자료 '문화예술로 물드는 토요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놀라거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탱고와 클래식 어울릴까

광주문화재단, 오늘 '레오정 위드 아이레스' 무대



정열의 탱고음악과 아름다운 클래식이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1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목요상설무대에 '레오정 위드 아이레스'의 '탱고와 클래식의 만남'을 선보인다.

'레오정 위드 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국립 탱고 아카데미 음악원을 졸업한 한국 최초의 반도네오니스트 레오정과 탱고피아니스트 이네스 도희길을 중심으로 이뤄진 탱고 양상불이다.

공연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아, '레오정 위드 아이레스' 멤버인 콘트라베이시스트 이상권이 참여한다.

연주곡은 아르헨티나 전통탱고 음악인 '반도네온의 탄식', 짖궂은 친구들의 만남을 노래한 '나쁜 회합', 김연아의 소치 올림픽 프리스케이팅 곡으로 유명한 '아버지여 안녕히' 등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70-749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델하우스, 갤러리 됐네

미태-우그로, 18~19일 영무예다음 전시장서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모델하우스)에서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행사가 열린다.

대안공간 미태-우그로와 (주)영무건설은 18~19일 광주시 서구 능성동 능성역 6번 출구 '영무에 다음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서 'Life as Art'를 주제로 하우스페어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동화건업(주), 승진산업(주) 등 지역 100여 곳의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하우스페어에는 강동호·고마음·김경란·김영설·김탁현·노여운·박구환·박성완·박세희·배수민·신호윤·양나희·엄기준·윤준영·이인성·이조흡·주대희·Haru.k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28명이 참여해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와 함께 현악 4중주(디딤돌) 미니 콘서트와 김영설 도예가의 작품 추첨 등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현대인의 주거공간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공간 이자, 분양사업 이후 철거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활용한 전시와 아트페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영무건설은 하우스페어가 끝난 이후 견본주택 전시장을 지역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무건설 박현택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작가들을 홍보, 소개하고 작품을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유튜브를 다품격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새로운 개념의 공간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7782-39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안은미와 춤을

亞문화전당 예술극장, 참가자 모집

'안은미와 함께 춤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제작하는 '조생경극-무舞/無·舞'에 출연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춘향' '바리' '사심없는 팬스' 등 관습의 틀을 깨 파격적인 춤을 선보이고 있는 현대 무용가 안은미와 안은미컴퍼니 단원들이 함께 하는 이번 작품은 연극과 무용이 결합된 쇼케이스 공연이다.

광주 시민에게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시민들은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선발될 50명의 시민은 안은미, 컴퍼니 단원들과 함께 무용, 움직임, 인문학 등으로 이루어지는 주3회 워크숍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죽음과 관련된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미를 몸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게 된다.

25일까지 모집하며 워크숍은 5~6월 주3회, 발표회는 6월27일 진행된다. 문의 062-410-36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설명회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광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2014년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17일 오후 3시 광주정보문화진흥원 3층 영상시사실.

설명 사업은 총 9억원이 지원되는 ▲CG 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 ▲문화콘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양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